

“국민 건강 지키기 앞장선다”

대한스포츠의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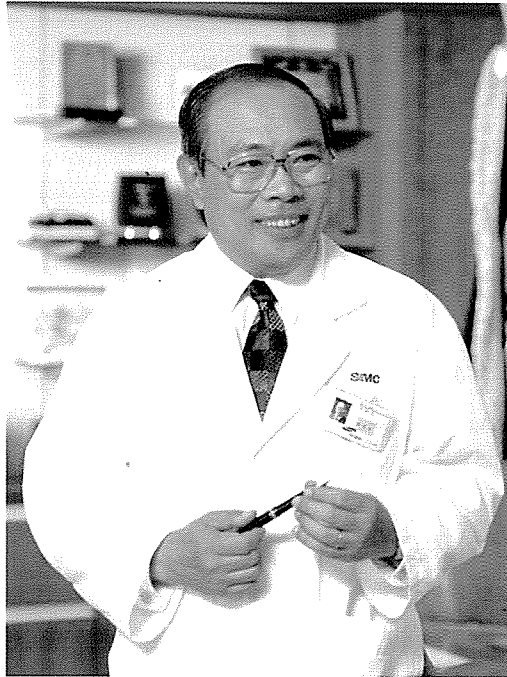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스포츠 의학을 연구, 발전시키고 스포츠 상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의 체력 향상과 심신 관리에 기여하며,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1981년 창립된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를 뿌리로 한 의료인, 체육인이 중심이 된 학회라 할 수 있다.

운동과학에 대한 지식 제대로 정립

스포츠의학회는 성인병의 운동요법, 스포츠 활동시 부상으로 인한 재활 등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대중으로 시야를 넓혀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스포츠의학이 지난 20여 년 동안 새로운 학문으로 국내에 뿌리 내리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스포츠와 의학의 만남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은 이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 아시아 스포츠의학연맹 국제학술대회(AFSM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 동안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스포츠로 인한 손상에서 재활, 성인병의 운동요법, 건강증진 등 의학의 전 부분에 걸쳐 학문적



스포츠의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대한스포츠의학회 초대 회장 하권익 박사.

으로도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동시에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운동과학에 대한 지식을 축적, 발전시켰다.

대한스포츠의학회가 설립된 배경에는, 평소 스포츠의학의 체계화를 위해 스포츠학과 관련된 모든 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학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하권익 박사의 힘이 컸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하권익 박사는 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의학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스포츠의학회는 범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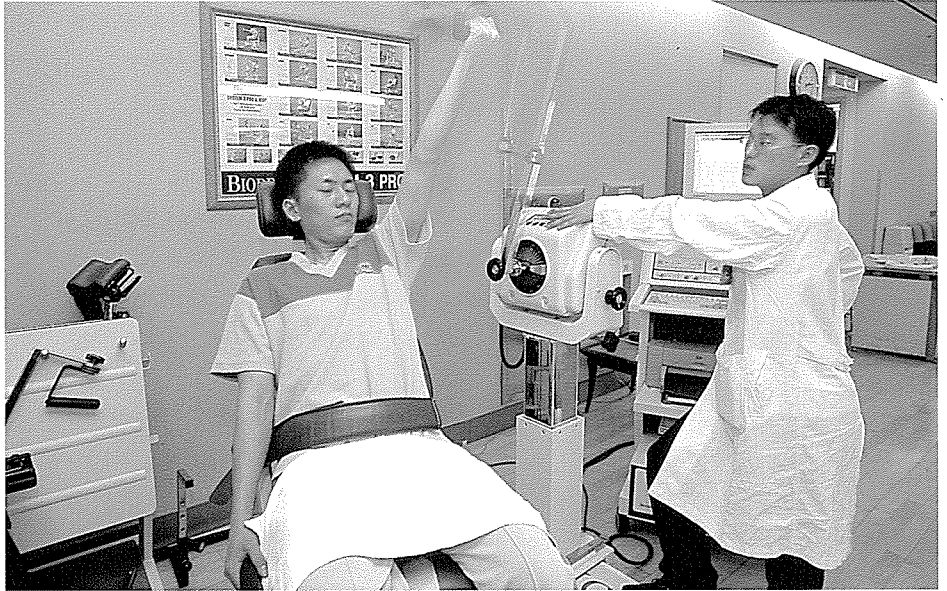
매년 1월과 8월에 발간되는 대한스포츠의학회 학회지는 1984년 5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Medicine>이라 명명하였고, 이후 편찬 활동을 활발히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8년 제1회 아시아스포츠의학상 수상

대한스포츠의학회의 국제적인 활동은 1984년 10월에 국제스포츠연맹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1998년 10월 8일에는 초대 회장이자 현 대한스포츠의학회의 고문인 하권익 박사가 제1회 아시아 스포츠의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는 스포츠를 통하여 대중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포츠의학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즐기는 대중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게 되었다. 이 상은 아시아 지역의 스포츠의학과 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국내 스포츠의학의 발전된 모습을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의학분과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에서 의사를 도와 운동처방을 담당하는 임상운동사협회와 운동선수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선수트레이너협회를 산하에 두고 국내 스포츠의학과 운동과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의학과 관련된 특정 학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스포츠를 통하여 대중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



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즉 스포츠의학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즐기는 대중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활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의 건강사업 등과 관련된 예방의학적 역할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

글_성상철 |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